



이미 입증된 작업 또는 설치 마법사 같은 터치스크린의 시각화 덕분에 콘젤라의 기장은 더 빠르고 쉽게 작업을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물러마티니 벤추라 MC 160 도입한 콘젤라 첫날부터 최고 성능 발휘 · 다양한 옵션 선택 가능

독일 파키르첸 바바라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콘젤라 베르라크스부쉬빈데리 우르반 메이스터GmbH&Co.KG사는 물러마티니 사철기 벤추라 MC 160을 도입해 그 성능을 시험해왔다. 마르쿠스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이 기계가 작동하기 쉽고, 가성비 가 뛰어나 솔루션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 물러마티니코리아

2014년 여름 물러마티니가 오랜 역사를 가진 콘젤라사에 새로운 사철기의 시험 고객이 될 것을 제안했을 때, 마르쿠스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은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제품의 대다수가 사철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최신 사철 기술에 관심이 있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물러마티니 영업부장인 피터 스테인씨는 고객들과 수년에 걸친 작업의 특성을 잘 알고 있고 이 시험 가동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사철 전문가가 있는 업계에서 새로운 기계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고 밝혔다.

첫날부터 최고 성능 발휘

이 제책사는 이미 2012년 드루파에 앞서 다이아몬드 MC 60 복라인용 EP 680 MC를 압축기와 연결해 가동하는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때문에 테스트 기계는 하루 작업량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새로운 벤추라 MC 160은 이미 수 년간 전 세계 작업장에서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벤추라 MC의 모든 특징을 통합해 보다 작은 크기로 탄생했다. 벤추라 MC 160은 첫날부터 아무런 제한도 없이 훌륭한 제작 환경을 연출했다.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은 “2014년 7월 벤추라 MC 160을 도입한 이후, 하루 2교대 때로는 3교대의 작업, 그리고 처음 6달 동안 1천만 부 이상을 아무런 문제없이 끝냈다”고 밝혔다.

7대의 물러마티니 사철기 보유

처음 몇 주 동안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들도 발견됐지만 생산에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았다.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은 “새로 개발된 기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드럽게 가동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콘젤라는 17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7대의 물러마티니 사철기와 2대의 복라인(Diamant와 BL500),

삼방재단기(Orbit), 북스타커(CB18)를 보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독일의 남부에 위치한 최고의 사철 전문업체로 불린다.

콘젤라는 고품질의 아트북을 평균 2500부씩 생산하고 주로 독일 출판사를 위한 카탈로그를 1만부씩 생산한다. 새로운 벤추라 MC 160은 처음부터 모든 종류의 제품 생산에 사용됐다.

서커, 롤러, 아지르.....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은 벤추라 MC 160의 훌륭한 품질뿐만 아니라 다른 특징에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첫째, 벤추라 MC 160은 물러마티니 특허 기술인 블로 에어를 이용한 매듭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사철 시스템이 다른 사철기와 달리 비싸며, 고장 나기 쉬운 그리퍼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둘째, 정합 트레이의 서커는 상품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수량만큼 개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다. 모든 서커는 진공상태를 형성하는 독립적인 인젝터를 포함하고 높은 상품 안정성을 보장한다.

셋째, 기계가 50사이클에 이르면 접지물의 자국을 방지하기 위해 롤러의 전원이 꺼진다.

넷째, 접지물의 순서를 체크하는 아지르 센서는 100% 품질 안정성 보장을 위해 보조 새들부와 통합될 수 있다.

다섯째, 매듭 재단 시스템 활성화(시장에 나와 있는 다른 기본 모델에서는 제공되지 않는 기능) 덕분에 장력 없이 각각의 책 블록 사이에서 재단된다.

여섯째, 매듭 종류 사이 작업 전환 시간이 매우 짧아 생산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수많은 장점 덕분에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이 테스트 후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은 별로 놀랍지 않다. 그는 “벤추라 MC 160은 산업 솔루션의 가치를 훌륭하게 증명해냈다”고 밝혔다.

커넥트 시스템과의 통합

콘젤라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철기와 마찬가지로 벤추라 MC 160을 2개의 벤추라 커넥트 시스템의 하나와 통합했다. 접지물들은 미리 정합 과정을 거쳐 적재된 후 1번

의 사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것은 사철 상품의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하고 효율적인 솔루션이다. 물러마티니의 커넥트 시스템은 인라인 가동과 오프라인 독립 가동 모두에 굉장히 유연하게 디자인됐다. 각각의 사철 기계 전의 완충 지대는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매듭 장력

성공적인 물러마티니 사철기의 작고 새로운 버전은 원래의 벤추라 MC 160보다 1m 짧고 모션 컨트롤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드라이브 디자인을 갖고 있다. 기본 모델도 새로운 매듭 장력을 사용한다. 이는 기계 가동 중 정밀한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합리적인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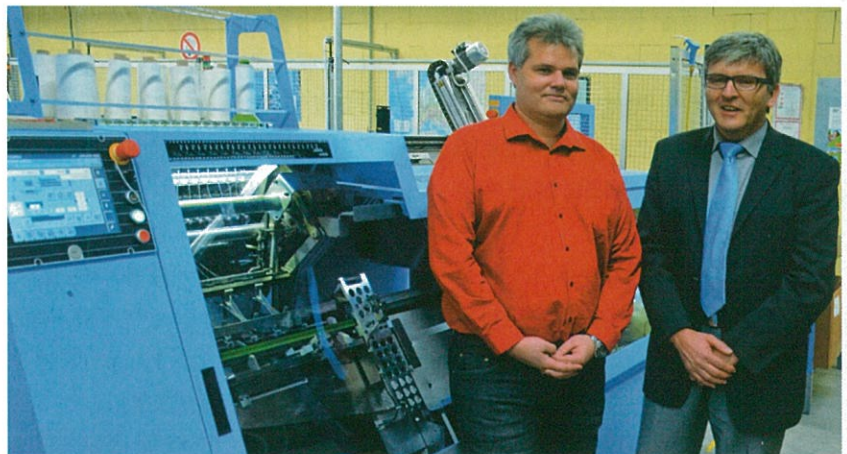
새로운 160 사이클 사철기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고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와 풀

더 타입을 위해 디자인됐다. 접지물 길이 120~425mm, 너비 80~320mm, 4페이지부터 4mm 두께까지 다양한 범위의 접지물을 작업할 수 있다.

이미 입증된 작업 또는 설치 마법사와 같은 터치스크린의 시각화 덕분에 빠르고 쉬운 작업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 결과 정형화된 그림 문자 덕분에 기장이 기계 전체의 상황을 쉽게 볼 수 있다.

벤추라 MC의 특징

- ▶특히 받은 드라이브 디자인의 서보 기술
- ▶서보 컨트롤되는 매듭 장력
- ▶조작버튼 터치로 지그재그 매듭 결합
- ▶박음질 없이 생산할 수 있는 옵션
- ▶실 분리 시스템
- ▶아지르(옵션)
- ▶실매듭(옵션)
- ▶리모트 서비스 지원(옵션) ↻



마르쿠스 에스테르만 생산부장(왼쪽)은 “벤추라 MC 160은 산업 솔루션으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훌륭하게 증명해냈다”고 밝혔다.



콘젤라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사철기와 마찬가지로 벤추라 MC 160을 2개의 벤추라 커넥트 시스템과 통합했다. 접지물은 미리 정합 과정을 거쳐 적재된 후 1번의 사철 과정을 진행하게 된다.